

‘마래터널’·‘오월결상’...시대의 아픔 간직한 ‘기억공간’을 찾아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공간, 시대를 기억하다

김명식 지음

여수 마래 제2터널은 지난 2004년 등록문화재 제116호로 지정됐다. 여수엑스포역이 위치한 덕충동에서 만성리 검은모래해변으로 가는 길에 있다. 터널 안은 거친 돌의 질감이 인상적이어서 자동차 광고에도 나온 적이 있다.

이 터널은 역사의 상흔이 깃든 곳이다. 마래 제2터널로 불리는 듯해서 보듯, 마래 1터널이 있다. 이들 마래 터널은 일제 침략의 역사와 관련돼 있다. 1926년 일제는 군량미를 비축하기 위해 창고용으로 마래 제1터널을 뚫었다. 바로 옆에 군사용 터널을 함께 뚫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래 제2터널이다.

마래 제2터널은 일제가 군수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 당연히 여수 시민이 강제 동원됐다. 피와 땀이 서린 비극의 역사 현장이다. “이 터널은 땅지와 정으로 하나하나 두들겨 깨부수고 깎아낸, 재료가 그대로 드러난 거친 면의 공간을 보여준다. 벽면을 쓰다듬



어봅니다. 거칠고 차갑게 느껴지는 날카로운 벽면의 질감과 한기는 손끝에서 가슴, 머리로 전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 있다.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공간은 문득 문득 비극으로부터 공동체적 가치와 의미를 일깨운다.

기억의 공간 ‘다크 투어리즘’을 조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의 저자 김명식이 펴낸 ‘공간, 시대를 기억하다’는 공간에서 의미를 찾고 나아가 공감과 연민, 회복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특정 공간이 일상의 배경과 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거룩한 성소로 투영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흔히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은 ‘흑역사 탐방’으로 불린다. 저자는 아픈 기억을 품고 있는 부정성(不淨性)의 공간에서 교훈과 희망을 찾고자 했던 시도가 이제는 일상의 공간을 찾아가는 데까지 확장됐다고 본다.

저자는 모두 3개의 분야로 나눠 기억의 공간을 산책한다. 첫 번째 공간은 근현대의 비극적 기억이 스며있는 곳으로 역사화된 기억 공간이 주요 테마다. 폭압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에 의해 무고한 이들이 희생된 장소들이다.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무고한 시민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 ‘오월결상’은 이들을 추모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

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오월정신의 전국화, 현재화’를 기치로 활동하는 오월결상위원회가 “5·18정신이 향쟁의 중심 도시였던 광주광역시에만 국한되어선” 안 된다는 기치로 추진했다.

기존과 달리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형태의 기념물을 상정했다. 목포역 광장을 비롯해 서울 명동성당 앞, 부산 서면, 서울기독교교회관 앞 등지에 세워졌다. 첫 오월결상은 부산 서면의 삼자공원에 2018년 1월 15일 설치됐다. 1987년 광주학살 책임 규명과 호헌철폐를 주장했던 황보영국 열사를 기리기 위한 의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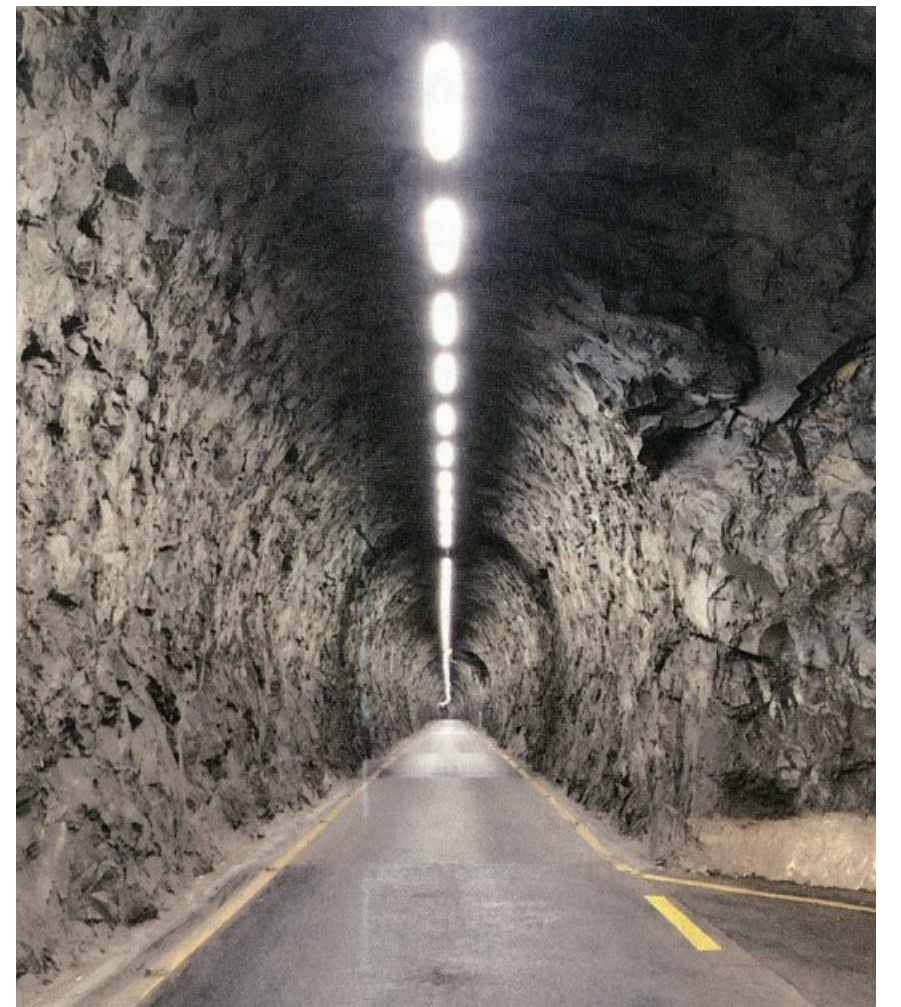
저자는 일상의 기억 공간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과거 ‘양재시민의숲’으로 불렸던 서울 양재동 ‘매현시민의숲’에는 여러 추모 조형물이 들어서 있다. 유격백마부대 총흔탑을 비롯해 대한항공 858기 희생자위령탑, 삼풍백화점 참사 희생자 위령탑을 만날 수 있다. 최근 들어선 ‘일상의 추념’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숨져간 이들의 넋을 달래는 ‘21세기형’ 기념비도 있다.

책에는 해외의 기억 공간들도 조명하고 있다. 전범국가 독일의 반성이 깃든 추모공간들은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나치에 핍박받고 학살된 동성애자를 추모하는 ‘박해받은 동성애자 추모비’와 유대인들의 저서를 불태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분서기념도서관’ 등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이 기억의 공간을 통해 기억의 조형력이 어떻게 공간을 만드는지, 그 공간은 어떻게 우리를 기억 속으로 이끄는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뜨인돌·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식민지 시기 일제가 군수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여수시민들을 강제동원에 건설한 ‘마래 제2터널’

소설엔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

김사과 외 지음



작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소설을 씀으로써 자신을 위로하고 또한 자신이 꿈꾸던 세계를 작품 속에 그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작가가 되기도 힘들지만, 막상 등단을 하고나서도 작가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만만치 않다. 생각만큼 창작의 길이 수월하거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설을 쓰고 소설가로 존재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다. 소설가들의 에세이를 엮은 책 ‘소설엔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는 현역 작가 23인의 소설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책은 ‘작가정신’ 창립 35주년을 맞아 기획됐으며 한국 대표 소설가들의 작가정신을 엿보게 한다. 저자로는 김사과, 김은지, 박민정, 박솔미, 손보미, 전성태, 정용준, 정지돈, 조경란, 한정현, 함정임 등이 참여했다.

23인 작가들의 소설에 대한 단상은 그들의 작품만큼이나 다채롭고 자유롭다. 한정임 작가는 지도를 소설에 연계해 말한다.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오빠와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지명 찾기 놀이에 열중했는데 그것이 훗날 문학에 이르는 모티프였다고 말한다.

“지도는 광활한 우주였고 지명은 셀 수 없이 퍼져 반짝이는 창공의 별이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별들을 훑날 찾아나갔다. 낯선 세상 속으로 떠나는 일이 삶이 되어버린 건 지도 찾기의 황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는 나에게 미지의 언어이고, 소설이고, 문학이다.”

또한 책에는 작가들이 손수 짚어 제공한 사진들도 수록돼 있다. 책상과 책장, 집필 도구 등이 담긴 작업실 풍경부터 소설 쓰기에 영감을 준 사물 등 다양하다. 또한 작가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보는 맛을 준다.

〈작가정신·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양간의 수행자들

구미래 지음



산사에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 가운데 하나가 공양간(供養間)이다. 좁은 의미로 공양간은 부엌의 의미로 쓰인다. 공양간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사찰 후원(後院)은 수행자들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곳이다. 식당, 공간, 장독, 우물 등 식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산사 후원의 문화사를 다룬 ‘공양간의 수행자들’은 사찰 음식이면서 자리한 승가의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불교민속연구소 소장인 구미래 박사다. 그동안 불교 의례와 수행, 생활문화를 주된 관심 분야로 삼아 영산재, 팔관회, 감로맹, 발우공양, 사찰음식, 탑불이, 연등과 같은 불교 무형문화를 연구했다. 저자가 이번 책을 펴낸 것은 지금까지 사찰의 식문화나 후원 문화 연구가 음식 자체에 치중돼온 점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다. 무형문화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승가의 일상을 인문학 관점에서 조명했다.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불교 후원문화’는 후원문화의 가치를 다루고 2장 ‘불교 후원 문화의 역사’는 불교를 초기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로 구분해 이를 초기불교 당시의 율장 조항과 중국불교 및 한국불교의 전개 과정에 따른 식생활을 다뤘다. 3장 ‘사찰의 살림살이 공간’에서는 공양간, 곳간, 방앗간 등 후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토대로 출가자 일상을 다루고 4장 ‘식량 마련하기’는 양식 마련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수행자로서의 후원생활을 다룬 ‘수행정진의 일상사로서 후원문화’와 공양과 발우의 의미를 담은 ‘수행자의 일상식, 발우공양’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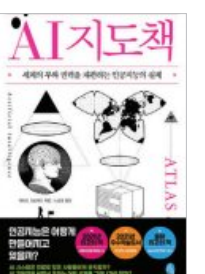
이밖에 ‘후원의 민속과 세시 음식문화’는 후원에 전승되는 조왕신앙, 세시에 따른 음식문화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불교 후원문화의 방향성’도 가능할 수 있다.

〈담인벅스·3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지도책

케이트 크로퍼드 지음, 노승영 옮김



자동 감정 탐지 시스템을 사용한 면접으로 면접자의 감정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직성이나 업무 열정 등 성격 특성을 파악해 점수를 매긴다.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를 인식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기까지 한다.

기사와 광고 등에서 접한 AI는 우리에게 그동안 무언가에 접목시켜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것으로, 정말이지 ‘인공’과 ‘지능’ 그 자체였으며 현대 과학과 첨단 기술의 정점으로 인식시켜왔다.

책은 그 관점을 뒤집는다. 저자는 ‘AI는 자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방대하고 집약적인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선임 수석 연구사이자 뉴욕대 AI 나우 연구소를 공동 설립한 저자 케이트 크로퍼드는 20여년간 인공지능의 사회적 의미를 연구한 AI전문가로서 이를 단언한다.

‘민주적 주변’의 저자 프레드 터너는 책의 추천사에서 “당신이 오로지 AI를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의 문제로 치부한다면 이 책은 AI는 자연세계, 정치, 역사, 때로는 아름다운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AI는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 자본주의라는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윤리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우려를 갖게 한다. 결국 인공지능은 자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대규모 데이터 집합이나 기존의 규칙 및 보상을 동원한 방대하고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권력 구조의 역할을 하며 하루 구조와 자본, 노동을 결합하는지 알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직결돼 있다. 산업적 추종과 차별이 아닌 정의와 평등을 향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소소의책·2만1000원〉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기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12월호

2022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2022
수고했어, 올해도

- 한 해를 보내며, 치유의 시간을
- 가볍게 떠나고 싶다면 이곳으로
- 송년의 헛헛함, 책과 영화로 채우세요

영도 오디세이
美味路
'생태관광 일번지'의 따뜻한 여행
목적은 푸근하다

겨울정미와 증기기관차 섬진강 기차마을 | 태안사 숲길
시그나리와 압록 상상스쿨 | 대항강 출렁다리
'가랑드' 토란 베이커리 | 깔끔한 맛의 토란 막걸리
정원카페 'OIDORA'와 '디트레인' 베이커리

2022
송년기획 - 2022 문화계 결산

문학 '문학의 연대'와 문학상 수상작들 눈길
전시 거장의 작품 만나는 대형 전시들 주목
공연·영화 다양했던 연극 공연,
뜨거웠던 '임윤찬' 무대

에향 초대석

'섬김의 리더십' 전하는 이태석재단 이사장
구수환
"공간·봉사·섬김의 삶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클릭, 문화현장

언제 가도 최고의
예술이 있는 곳
과천국립현대미술관

예외문화기행 ⑩-오슬로(하)
작품 따라 시티투어
도시 전체가 살아 있는
조각공원, 오슬로

기획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② 서울

'어둠 찢고 나라를 지키다'
묵직한 공간에서
숙연한 감동

힐링 전시 - 조르주 루오전
"루오의 '미제레레'가
건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⑤
안동 도산서원
대학자의 학덕을
마주하는 공간

평민인 '예술가의 한 끼' ⑧
"조각가는 농부 마음 가져야"
박충흠, 농사 지어 자급자족

스포츠 이야기
KIA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특별했던 열기
"제주도에서 시작을 향해 뛰었다"